

리쿠기엔 정원

단가(和歌)의 마음이 숨쉬는 우아한 영주 정원



기념 스탬프 날인란

특별명승 리쿠기엔 정원

- 개원 년월일
1938년 10월 16일
 - 개원면적
87,809.41㎡
 - 개원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12월 29일 ~ 1월 1일)
 - 무료공개일
미도리(녹색)의 날(5월 4일)
도쿄도민의 날(10월 1일)
 -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
- 【문의처】
리쿠기엔 서비스센터
전화 03-3941-2222
우편번호 113-0021 東京都文京区本駒込
(분쿄구 혼코마고메) 6-16-3

	개인	단체 (20명 이상)	연간 패스포트 (리쿠기엔)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일반	300엔	240엔	1,200엔	4,000엔
65세 이상	150엔	120엔	600엔	2,000엔
무료	초등학교 이하와 도쿄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생 신체장애인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보호복지수첩 또는 요육수첩을 지참하신 분 본인과 시중드시는 분			

리쿠기엔·규후루카와 정원 공통 '엔수비' 입장 교환권 400엔

집회장 (임대)	① 오전 9:00 ~ 12:00			② 오후 12:30 ~ 16:00			③ 하루 종일 9:00 ~ 16:00		
	신센테이 전체 (25명)	4,800엔			4,800엔			9,600엔	
신센테이 마쓰·쓰즈노마 (17명)	3,600엔			3,600엔			7,200엔		
신센테이 모미지노마 (8명)	1,200엔			1,200엔			2,400엔		
기슭테이 다실 (5명)	7,400엔			7,400엔			14,800엔		

* 6개월 전의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합니다. * 별도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오시는 길】

《전철》
JR아마노테선 '고마고메' (남쪽 출구), 도쿄메트로 난보쿠선 '고마고메' (2번 출구)에서 하차, 정문까지 도보 7분, 소메이 문까지 도보 2분
* 소메이 문은 행사 개최 시 등에 임시로 개문

도에이 미타선 '센고쿠' (A3 출구)에서 하차, 정문까지 도보 10분

* 주차장은 없습니다.

규후루카와 정원까지 도보 18분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시거나, 정원 안에서 동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돛자리 등의 사용, 주류 반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 건물 및 청경물의 보호를 위해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케치를 사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 하마리큐 온시 정원
-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리쿠기엔 정원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무코지마 백학원
- 기요스미 정원
- 구 후루카와 정원
- 도노가야토 정원

단가(和歌)의 정원

리쿠기엔은 5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신임이 두터웠던가와 고에의 지방영주 야나가사와 요시야스가 1702년에 지은 정원이며, 일본의 전통적 시인 단가(和歌)의 정취를 바탕으로 하는 '회유식 석가산 천수'양식의 영주 정원입니다. 이곳은 연못 주위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채롭게 변하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섬세하고 온화한 일본식 정원입니다.

에도시대의 영주 정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존재로, 메이지시대가 되면서 미쓰비시의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로의 별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38년에 이와사키가로부터 도쿄시(도)에 기증되고, 1953년에 나라의 특별명승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쓰쓰지 차야(차집)

메이지시대에 철쭉의 고목을 이용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전쟁 피해를 면하여 오늘날까지 그 희귀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풍이 불 만합니다.

다키미 차야(차집)

정자 옆을 계류가 흐르며 바위 사이에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정자에서는 폭포와 배치된 돌(水分石/미즈와케이시) 등 경관과 물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석주

정원 안에 있는 88곳의 경승지(리쿠기엔 88경) 마다 석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32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호라이지마 섬

신선사상을 주제로 하는 돌로 된 구조물의 일종으로, 전형적인 동굴석조(아치형)의 섬입니다.

정원 이름의 유래

리쿠기엔이란 이름은 중국 한시의 분류법(시의 六義)을 본떠 지어진 고급집의 서문에서 나오는 일본 단가의 육체(6가지 분류: 소에우타, 카조에우타, 나조라에우타, 다토에우타, 다다고토우타, 이와이우타)에 유래한 것입니다. 야나가사와 요시야스가 직접 저술한 '六義園記(리쿠기엔노키)'에서는 일본식으로 '무쿠사노소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자 용어로 '六義'를 '리쿠기'라고 읽는 습관에 따라 '리쿠기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후지시로 고개

정원 안에서 가장 높은 석가산으로, 해발은 35미터. 정상은 '후지미야마'로 불려왔으며 그곳에서는 훌륭한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슈(현재의 와카야마)에 있는 같은 이름의 고개에서 이름이 지었습니다.



사사가니노미치 길

예로부터 거미를 '사사가니'라고 불려왔으며, 길의 골목이 거미줄처럼 좁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도게쓰쿄 다리

'와카노우라 아시베노 다즈루노 나키고에니 요와타루 쓰키노 가게조 사비시키(와카노우라의 연못가에 사는 학의 울음소리에 달빛도 외롭게 보인다)'라는 노래(단가)에서 이름이 지어진 돌로 된 다리입니다. 2개의 커다란 바위의 무게가 주변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모야마·세야마

나카노시마 섬에 있는 석가산. 옛부터 여성을 妹(이모), 남성을 傭(세)라고 칭하였는데 이 나카노시마 섬은 남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자나기, 이자나미의 전설이 깃들여진 '세키레이세키'도 있습니다.



데시오노미나토

다이센스의 못가 이름 중의 하나. 조망이 아름다우며 오른쪽에는 나카노시마 섬, 왼쪽에는 호라이지마 섬, 건너편에는 후키아게노하마가 보입니다.

내원 대문

정원의 중심 부분에 들어가기 위한 문으로, 광장에는 수양벚나무의 거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정원 가이드(일본어)

자원봉사 안내원과 함께 정원 내를 산책하면서 리쿠기엔의 불거리와 일본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 단가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어보십시오.
※토·일요일, 공휴일의 오전11시와 오후2시의 하루 2회씩 실시. 소요시간 약 60분(무료)